

보도일시	2018년 4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가능 (인터넷·통신·방송 등은 4월 1일(일) 오후 12시부터)		
배 포 일	2018년 3월 30일(금)	담당부서	여신제도부
담당부장	지순구 부장(T.3705-5704)	담 당 자	김완석 과장(T.3705-5223)

4월 2일부터 은행권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.

- 창업 활성화와 재도전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기여

- 은행연합회(회장 김태영)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추어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4.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하였음을 밝힘
-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*해 왔으며, 금번 공공기관(신보, 기보, 중진공, 지신보)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**
 - * 법인기업의 실제 경영자에 한해 입보 가능하며, 공공기관 연대보증은 '16년 창업 5년 이내 기업 → '17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
 - ** 「4.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·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」(3.8., 금융위·중기부 공동 보도자료)
- 금융위는 은행권 간담회(3.8.)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, 은행권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(비보증분)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함

- 이를 위해 보증기관-은행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였고,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-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임
- 또한,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하여,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임
- 한편,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,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,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임
- 금번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. 끝.

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fb.or.kr>)의 은행연소식 과 보도자료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.